

# 달빛 빵집의 첫 손님

곰돌이 빵돌의 향긋한 환영 이야기





고요한 밤, 달빛 빵집에 작은 불이 켜졌어요. 곰돌이 빵돌은 반죽이와 함께 환히 웃었지요. 따끈한 빵을 만들 준비로 마음이 콩, 콩 떨렸어요.



빵돌은 오늘의 첫 손님을 기다리며, 반죽이와 함께 툭툭  
반죽을 했어요. '향긋한 빵 냄새네,' 빵돌이 말했어요. 솔솔,  
살랑, 또 솔솔.



그때 너구리 손님이 두리번거리며 들어왔어요. '안녕하세요! 빵  
냄새에 이끌려 왔어요,' 너구리가 미소를 지었어요. 눈빛이  
반짝였지요.



빵돌은 따뜻한 식빵을 오븐에 넣었어요. '조금만 기다려주세요,'  
빵돌이 너구리에게 말했지요. 흥분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.



너구리는 차 한 잔을 마시며 기다렸어요. '빵 냄새가 정말  
좋네요,' 너구리가 중얼거렸어요. 따끈따끈한 차의 향기가  
퍼졌어요.



드디어 빵이 다 구워졌어요! 빵돌이 고소하고 향긋한 빵을  
너구리 앞에 놓았지요. '와! 정말 맛있겠어요,' 너구리가 눈을  
반짝이며 말했어요.



너구리는 한 입 크게 물었어요. '따끈하고 정말 맛있네요!'  
너구리는 행복에 겨운 목소리로 말했어요. 사르르, 마음이  
녹았어요.



너구리는 다정한 빵집에 다시 오고 싶다고 했죠. 빵돌과 반죽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어요. 그것은 우정의 시작이었어요. 한 걸음, 두 걸음. 그리고 또 한 걸음.



# 끝

한 페이지마다 작은 별이 빛났어요.

달빛 빵집의 첫 손님

글·그림 올레길

© 2026 올레길 · Storypia